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실천으로

박영숙 불새란 이사장

한국여성재단이 무에서 유를 독창적으로 창출해 내야 하는 또 하나의 해가 밝았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경제, 정치, 사회, 문화를 막론하고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한국여성재단이 해야 할 2004년도 의 우선시제는 무엇보다도 북한 처지에 몰려있는 이산가족이 막대한 선행을 하지 않도록 희망의 불씨를 살려내는 일이다. 희망의 미래를 미리보며 이러한 현실을 면피해 주는 힘이 되어 주기 때문이다.

지금도 어느때보다도 우리들 서로간의 나눔과 보살핌의 그물망을 원구이 내고 확장하여 이산가족의 더없이 취약한 능력을 내세우는 <공공지수>를 높여야 한다. 우선 이산가족이 함께 꿈꾸면 이루어 진다고 하지 않는다. 보다 많은 이산가족이 같은 꿈을 꾸게 하는 일을 위해 여성재단은 창의력을 발휘해야 한다. 여성재단이 재단으로서 기금모금(Fund Raising)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동지모으기(Friend Raising)에 힘쓰기로 한것이 바로 그러한 관행을 성취해 내기 위한 것이다.

기금모금의 함께 꿈을 꾸어와 하는 다양한 관행으로써는 첫째 여성의 빈곤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다. 처지에 상관없이 시간이라 못해 지내거나 등반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들에서 여성의 빈곤문제에 심각성을 집착할수 있다. 경찰청의 이산가족에 의하면 현재까지 증가하고 있는 빈곤으로 인한 자살률과 직업 불충족 등으로 가정주부가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을 대부분은 아구구로 이라는 사실은 여성가족부 빈곤상황에 노출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성가족부의 비율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여성의 빈곤문제는 자녀교육, 어라이더 인권, 노인후생, 가정유지등의 문제들로 직결되어 있고 자칫 세습적 빈곤 악화에서 그 심각성을 인식해야 하며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한다.

여성재단은 지난해에 <여성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미 추진을 위해 로드맵으로 작성된 기금함용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한바 있거니와 재단은 지도력으로 여성의 빈곤관행을 위한 다양한 방면으로 희망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둘째 성평등사회구축을 지향하고 있는 여성재단이 모든 부문에 치르게 될 총선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적극 대처하는 일이다. 그러기위해 재단이 해야 하는 구체적인 관행은 국민의 여성인 권을 확대해 주며 집권 정당에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정책안으로 제도 개편을 힘쓰고 있는 여성총선연대를 구성하고 깨끗한 인재를 발굴하여 주권자에게 공개추천하고 공천과 당선운동에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지역별 이트위크의 활동이 모든 활동이다.

한예문화재단을 보면 16대 총회이원들이 이원활동 예산은 10여 여생의 6명(총 16명중)이 뽑혔다. 주 상임위원에서 권문생, 정일생, 가평생 등에서 여성위원들이 뽑혔고 평생을 받고 있는데서 보듯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국민이 아니라 깨끗한 정치참여에 핵심하는 대안이 될수 있어서 희망의 불씨가 되는 것이다.

셋째, 비정부단체 사회구조에서 필요로 하는 공익활동을 저지하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의 정책 수립, 제도 마련, 비정부단체의 인식 전환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일이다. 국가운영에 있어 비정부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고 있는 국내외의 추세로 미루어 우리나라의 비정부단체 활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현실을 타계해야 한다.

오늘처럼 기부행위를 주체화시키거나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다변화하기 위한 제도와 제약을 그대로 두거나 기부문화의 종속적 정책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저수준 기부기구가 민간모금에서 인간재판으로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민간기구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비영리보살핌의 작은 손길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경쟁은 국민계급이나 기부행위를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재단은 동지모금 제정제안을 통해 기부문화의 뿌리가 깊어진 선진국에서와 같이 국민모금 비영리보살핌의 그물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의 정책리더로 개입에 앞장서므로 기부문화 확산의 희망의 불씨를 지켜야 한다.

한국여성재단이 변화의 원인이 되어 줄 필요성에 실려나와 가는 희망의 불씨는 부재기수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대다수 비영리단체가 절망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실정들에게 용기를 불어 일으키는 희망의 길에 이음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인 2004년은 한국으로 돌리자면 '이 해'가 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모두 우리들에게 작은 희망을 되찾는 해임 해임의 힘을 살려 하루하루 밝게 활짝 웃는 해임으로 만들자. 이 같은 해임을 위해 함께 손을 부르. 그러면 이루어 질 것이다.

(32)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갑신년으로>

박영숙(본재단 이사장)

한국여성재단이 무에서 유를 독창적으로 창출해 내야하는 또하나의 해가 밝았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막론한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한국여성재단이 해야 할 2004년도의 우선 과제는 무엇보다 더 극한 처지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막다른 선택을 하지 않도록 희망의 불씨를 살려내는 일이다. 희망은 미래를 바라보며 어려운 현실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어 주기 때문이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더 우리들 서로간의 나눔과 보살핌의 그물망을 일구어 내고 확장하여 사람들의 더불어 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공존지수>를 높여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꿈꾸면 이루어 진다고 하지 않는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꾸게 하는 일을 위해 여성재단은 창의력을 발휘해야 한다. 여성재단이 재단으로서 기금모금(Fund-Raising)도 중요하지만 금년도에 그보다 더 동지모으기(Friend-Raising)에 힘쓰기로 한 것이 바로 그러한 과제를 성취해 내기 위한 것이다.

갑신년에 함께 꿈을 꾸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들로서는 첫째, 여성의 빈곤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다. 최근에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자녀들과 동반자살하는 충격적인 사건들에서 여성의 빈곤문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경찰청의 자살통계에 의하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빈곤으로 인한 자살자의 직업 분류를 보면 가정주부가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가구주들이다. 이러한 사실은 여성가구주가 빈곤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성가구주의 비율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여성의 빈곤화 문제는 자녀교육, 어린이의 인권, 노인부양, 가정유지 등의 문제들과 직결되어 있고, 자칫 세습화 될 수 있다는데서 그 심각성을 인식해야 하며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여성재단은 지난 해에 <여성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의 추진을 위해 로또복권으로 구성된 기금활용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한바 있기도 하지만 재단은 지속적으로 여성의 빈곤탈출을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희망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둘째, 성평등사회 구축을 지향하고 있는 여성재단이 오는 4월에 치르게 될 총선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적극 대처하는 일이다. 그러기위해 재단이 해야 하는 구체적인 과제는 국민의 여망인 맑은정치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

는 정치실현을 위한 정치관련제도 개혁을 ^{함께} 힘쓰고 있는 총선여성연대와 유능하고 깨끗한 인재를 발굴하여 각 정당에 공개추천하고 공천과 당선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의 ^{모금활동이다.} ^{non}

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16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베스트 10에 여성의원 6명(총 16명 중)이 뽑혔다. 각 상임위에서 전문성, 성실성, 개혁성 등에서 여성의원들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서 보듯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국민이 바라는 깨끗한 정치실현에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어서 희망의 불씨가 되는 것이다.

셋째, 더불어 사는 사회구축에서 필요로 하는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의 정책수립, 제도마련, 언론과 사회의 인식전환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일이다. 국가운영에 있어 날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증시되고 있는 국내외의 추세로 미루어 우리나라의 시민사회 육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

오늘처럼 기부행위를 규제만하거나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단속하기 위한 제도나 세법을 그대로 둔 채 기부문화의 올바른 정착은 기대하기 어렵다. 더구나 정부기구가 민간모금에서 민간재단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민간기구의 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언론의 나မ်과 보살핌의 작은 손길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이 경향은 국민 개개인의 기부행위를 주저하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여성재단은 동지모으기 캠페인을 통해 기부문화의 뿌리가 정착된 선진국에서와 같이 국민모두가 나눔과 보살핌의 그물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의 정책과제(도) 개선에 앞장서므로 기부문화 확산의 희망의 불씨를 지펴야 한다.

한국여성재단이 변혁의 원년이 되어 줄 갑신년에 살려내야 하는 희망의 불씨는 부지기수이다. 한마디로 줄이자면 어떠한 이유에서건 절망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일으키는 <희망의 릴레이> 운동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갑신년인 2004년은 한글로 표현하면 '이 천사'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모두 누군가에게 작은 천사가 되어주는 매일 매일의 삶을 살면 더불어 밝게 살 수 있는 세상은 만들어진단다. 이같은 세상을 위해 함께 꿈을 꾸자.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